

‘헛돈’만 쓴 목포 자유시장 활성화 사업

2009년 이후 28억원 투입
허술한 추진에 침체 계속
육상공연장을 공연 전용
남진야시장 매장 대폭 철수

■ 목포 자유시장 투자 예산

사업내용	예산(만원)
문전성시사업 (2009~11년)	6억5000
자유시장 주차장 조성 (2016년)	7억5000
남진야시장 조성·공연 사업 (2015년~)	9억6000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2017년)	5억2000

목포 자유시장이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수십억원을 투입한 목포시의 활성화 정책이 무색할 정도로,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꼼꼼한 활성화 전략도 없이 헛돈을 쓰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23일 목포시에 따르면 삼학동 자유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9년 이후 28억 2000만원을 투입, 인프라 구축 및 관광객 유치 사업을 진행중이지만 침체된 시장 분위기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목포시가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실시한 ‘문화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일명 문전성시 프로젝트)에 따라 조성된 육상공연장의 경우 울 들어 단 한 차례의 공연도 열리지 못했다. 사용자가 없다보니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목포시는 당시 6억5000만원을 들여 육상 공연장과 도개비방송구, 시민문화교실



남진 야시장 개장 당시 35개에 달하던 먹거리 매장이 관광객 부재로 철수, 10개 매장에 남아있지 않으면서 활성화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등을 조성, 운영했다.

남진야시장도 비슷한 처지다. 지난 2015년 12월 남진을 테마로 한 남진 마케팅을 착안, 시장 안에 남진야시장을 개장했지만 관광객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 개장 당시 35개에 달했던 시장 내 먹거리 매장은 손님이 없어 10개 매장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다. 나머지 매장은 모두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해 철수했고 신규 먹거리 매장 운영자도 찾기 쉽지 않다.

목포시가 ▲전통시장 차별화 ▲야시장 고품격화 ▲야시장 관광 상품화 ▲관광객

유입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내걸고 시설물 정비와 문화 공연에 10억 원을 투입한 점을 고려하면 허술한 정책 추진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목포시는 이밖에도 또다시 복합문화공간 조성(9600만원), 문화가 있는 남진야시장 조성(6700만원) 등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5억2000만원(국·시비 각 2억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키로 해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 내용이 ‘문전성시’ 프로젝트와 남진 야시장 활성화 정책과 유사한 만큼 충분한 고민 없이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도 제

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목포시가 지난해 35면의 주차 면을 늘리기 위해 7억5000만원을 들인데 따른 논란도 거세다. 단순 계산대로라면 주차면 한 곳을 조성하는데 2000만원을 들인 셈이다. 고작 35면의 주차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수억원을 쓰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목포시의회 관계자는 “남진야시장에서만 볼 수 있는 특색있는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발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시 원문정보 공개율 전남 최저

율 55.2%로 전남 평균 밑돌아
시민 실생활 정보도 공개 안해

■ 전남 지자체 원문정보 공개율

기관명	공개율(%)	
	2016년	2017년
평균	84.3	82.2
전남도	85.3	86.8
강진군	80.7	79.0
고흥군	88.6	88.7
곡성군	78.3	75.0
광양시	76.5	74.2
구례군	89.5	87.3
나주시	76.5	75.5
담양군	78.5	79.4
목포시	67.2	55.2
무안군	76.5	75.2
보성군	90.5	82.8
순천시	68.8	65.0
신안군	75.9	66.6
여주시	86.8	84.1
영광군	90.7	84.2
영암군	92.8	91.1
완도군	94.1	90.9
장성군	89.4	87.0
장흥군	94.1	94.1
진도군	74.2	71.8
함평군	77.9	72.6
해남군	91.2	87.8
화순군	80.2	75.1

목포시의 원문정보 공개율이 전남지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 알 권리와 정부 투명성을 높여겠다는 정부의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목포시의 지난해 원문정보 공개율은 67.2%로, 전남 22개 자치단체 중 가장 낮았다. 목포시의 공개율은 전남 평균(84.3%)에도 크게 못 미쳤다. 목포 다음으로 순천(68.8%), 진도(74.2%) 등이 낮았다.

목포시는 올해 원문정보 공개율도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55.2%에 불과, 전남에서 가장 원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목포의 공개율은 목포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순천(65.0%)에 비해서도 9.8%포인트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목포·순천 다음으로 신안(66.6%)이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목포 정부가 지난해까지 ‘정부3.0 실적 평가’ 항목에 ‘원문정보 공개율’을 포함시켰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목포시는 또 시민들 실생활과 연관된 정보들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예를 들면 쓰레기 발생량의 경우 지난 2014년 발생량 외에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대기·소음 환경보전 관련 검사 측정 결과도 연초에 공개토록 했지만 지난 2014년 이후 지키지 않고 있다.

최근 인상된 하수도 요금과 관련된 정보도 2015년까지만 공개해놓은데다,

교량·터널 등 안전점검 결과도 2015년까지만 제공해 홈페이지 관리를 도외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흘러나온다.

수시 공개토록 하고 있는 관내 기업 현황도 산정농공단지와 삼진산단에 대해서만 제공할 뿐 대양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아예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LG화학 여수공장, 어르신 200명과 ‘도전! 청춘 골든벨’



LG화학 여수공장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퀴즈 프로그램을 마련, 눈길을 끌고 있다.

LG화학 여수공장은 지난 17일 여수 흥국체육관에서 ‘2017년 도전! 청춘 골든벨’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행사에는 200여명의 지역 어르신들이 참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LG화학 여수공장 관계자는 “지역 대표 기업으로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화학 여수공장은 ‘Well Aging(멋지게 나이들기)’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지역 어르신들의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한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목포 교육복지·진로 페스티벌 1500명 참여 성료

목포 교육복지·진로 페스티벌이 지난 19일 삼학동 중앙공원에서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 목포교육’이라는 슬로건에 따라 지역 초·중학생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

학생들은 이날 중앙공원에 마련된

30개 체험 부스를 돌며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했다.

페스티벌에는 18개 청소년 팀이 참여, 난타·밴드·가야금연주·댄스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2017 남도담사기범지
강진방문의해
VISIT GANGJIN 2017. KOREA

우리 삶에 만남이 필요한 순간

강진만 축추는 갈대축제

제2회 The 2nd GangjinBay Reeds Festival

2017. 10. 27(금) - 11. 12(일) |강진읍 일원| 강진만 생태공원

주최 강진군 주관 강진군 향토축제추진위원회 찾아오시는 곳 강진만 생태공원